

그리스도인에게 영화, 너란...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문화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화는 기독교 신학이 체현되는 현장이다. 교회사적으로 문화라는 현장을 적대시하는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부터 문화와 신학을 굳이 구분 하지 않는 자유주의 입장까지, 모두 5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영화는 문화의 대표적인 매체이며, 산업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영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즐겨 봐도 될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봐야 할까? 필자는 강의 현장에서 이런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할 때가 많다.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세대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영화가 좋을지 선택의 문제 보다는, 영화 한편을 보는 태도나 깊이,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에 집중하여 풍성함을 나누는 방식을 소개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와 영성』에서 로버트 존스톤은 '영화 비평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영화를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가 보는 영화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가에 대해 5가지 입장을 소개한다. 이 입장은 리차드 니버의 5가지 모형과 통하는 면이 있다. 그

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로 영화를 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하지만, '볼 수 있는가'이지, '보아야 마땅한가?'가 이념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면 로버트 존스톤의 첫 번째 입장부터 살펴보겠다.

1. 회피하는 입장

윤리적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점으로 이 입장의 그리스도인은 영화의 예술적 측면보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신학은 주로 영화를 검열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초기 보수적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은 영화를 악마의 도구라 했다. 옛 이야기 같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저속하거나 반기독교적인 내용의 영화는 절대 보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보이콧을 벌여서 저항하는 일을 적극 지지한다. 과거 <다빈치 코드>(2006년)가 국내에 개봉할 때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원에 상영금지 소송을 넣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과격 한 보이콧이 벌어지기도 했다.

2. 경계하는 입장

회피보다는 허용적이지만, 여전히 영화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보기는 보지만, 매우 조심스럽고 우려하는 태도로 볼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살인자로 그려지거나, 목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영화를 본다면 관

객이 정말로 그렇다고 믿게 될 수도 있어 위협할 수도 있다. 영화는 언제든지 내가 가진 신학을 침범하여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3. 대화하는 입장

이 입장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듣는다. 신학적으로 옳고 그르냐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를 충분히 감상한 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이것은 균형 잡힌 비평자의 자세로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비전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학과 영화의 대화를 통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4. 수용하는 입장

이 입장부터는 영화가 그리스도인에게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대화를 넘어 영화로부터 종교적 지혜와 통찰을 배운다. 영화가 가진 의미의 이해를 넘어 영화에 몰입시 얻는 통찰력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깊이와 폭을 더한다. 예를 들어 종교적 주제와 상관없는 영화도 인간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풍성한 통찰을 주는 영화들이 있다. 종교적인 거룩함, 아름다움과 통하는 영화들이 있다. 필자는 이런 영화를 '종교를 닮은 영화'라고 부른다.

5. 신적인 만남

"영화는 관객에게 초월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성례전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가령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술작품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기도 한다. 영화라는 예술이 관객에게 바로 이런 경외감과 경이감을 일깨울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

물론 모든 영화를 수용 혹은 신적인 만남의 경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경계해야 할 영화도 있고,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영화도 있다. 혹은 한 영화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동시에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피나 경계의 입장에만 머물러 영화 즐기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

내 인생의 영화라는 말이 있듯이, 영화 한 편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의 구석구석 숨겨진 요소들이 나의 신념과 신앙을 해치고 공격하여 결국 무너뜨린다고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고 해서 나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강경한 태도로 귀를 닫고 영화가 이야기 하는 방향과는 상관 없이 자신의 신념만으로 영화를 차단하는 성급함이 있다면, 영화를 영화 자체로 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화하는 입장'이다.

한편 반대로 가리지 않고 영화를 즐기는 것에 죄책감을 갖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 대신 즐거움 속에서 의미를 찾아 신앙과의 접촉점을 풍성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혼자서 힘들다면 친구나 공동체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나눌 것을 권한다. 먼저 아무 선입견 없이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과 장면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고, 충분히 나눴다면, 이제는 영화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 본다. 토론으로 영화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나의 견해를 나눈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살펴보면서 영화의 세계관을 분석하는 능력도 점차 길러질 것이다.

그리스도적 인물이 나타난 영화들

태생적으로 '대화하는 입장'이 요구되는 영화들이 있

다. 기독교나 성경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노아> 같은 영화나,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출발하는 영화들이 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그리스도가 직접 나오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비유적 인물로서 예수를 표방하는 현대적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다. 그런 캐릭터를 ‘그리스도적 인물’이라고 칭해 보겠다.

그리스도적 인물이 나오는 영화로 <바베트의 만찬>(1996)을 꼽을 수 있다. <바베트의 만찬>은 덴마크의 한 작은 마을 청교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이 마을에 바베트라는 프랑스 여자가 하녀로 오게 된다. 바베트는 충실하게 이 가정의 자매들을 섬기다가 어느 날 어마어마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다. 바베트는 프랑스로 떠날 것 같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돈을 전부 성대한 만찬을 준비해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에 갇힌 이 가정에 새로운 음식으로 화해와 회복을 가져온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진귀하고 세속적인 프랑스 음식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지만, 그 맛과 바베트의 손길에 점점 마음이 녹아드는 장면은, 율법을 깨고 사랑의 새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속적 희생을 떠올리게 된다. 바베트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적 인물인 셈이다.

2013년에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을 생각해 보자. 이 영화는 6살 딸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신지체 장애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코믹하고 감동적으로 버무려 천만을 돌파한 영화이다. 가족영화로 분류되기도 하고,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어 누구나 공감할만한 대중 영화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보면 단순히 아빠의 사랑이 아니라, 억울함을 무릅쓰고 대신 죽음으로 딸에게 새생명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려는 아빠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가 주



요 구조이다. 이것은 분명히 ‘대속’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한 것이다. 예승이라는 딸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예수’로 들리는 착각을 일으킨다. 실제로도 “예수?” 하고 되묻는 장면이 감독의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지나친 신화와 후반부 감정신의 늘어진 연출 등은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 말하기는 어렵다. 평범한 오락영화에 그쳐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감독의 숨은 의도가 극중에 녹아들어 대중적으로 어필한 영화로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7번방의 선물>이 감독의 명확한 의도로 성경적 세계관을 영화에 녹여낸 예라면, 직접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진 않았지만 종교적인 대화를 요청하는 영화들도 있다.

봉준호, 박찬욱, 김기덕, 이창동 감독들의 영화에 지속적으로 보이는 구원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버트 존스톤은 이를 ‘기독교를 닮은’ 영화라 말하였고, 고신대 강진구 교수는 이런 영화들이 ‘구속적인 영화’에 속한다고 했다. 이창동 감독은 영화 <밀양>에서 기독교의 구원으로 잠시 위로를 얻었던 주인공이, 그 구원의 허무함과 윤리적인 딜레마를 겪고 신을 떠나 홀로서기를 하게 된다는 결말을 그렸고, 박찬욱 감독은 복수 3부작의 마지막 편 <친절

한 금자씨)에서 아무리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복수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김기덕 감독은 신학을 전공했으나 그의 영화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만물이 윤회하는 불교적 세계관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피에타>처럼 예수를 전복적으로 그려 뒤틀린 성경적 세계관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나 <쇼생크 탈출>에서 보이는 전복적인 요소들로 이 영화들이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거나 기독교인이 보서는 안 되는 영화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보다 넓은 구속적인 영화의 관점에서 영화를 통해 끝없이 갈구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와 죄, 인간적 한계에 '영원한 구원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주제의식에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유익한 비평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준호 감독의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악함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미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모습 뒤에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구조화된 권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담고 있다. 그의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는 15년 전에 개봉된 영화지만, 현재의 청년 실업과 희망 없는 사회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제시하며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기득권층의 모습을 예견이라도 한 듯 보여 준다. 기득권에 대항하여 싸우는 힘없는 소녀와 기득권에 편성하려는 중년의 이야기를 마치 동화인 듯 포장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시대를 앞서갔던 농도 짙은 블랙코미디로 흥행은 참패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영화에서 이러한 사회비판적인 주제를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써 작은 소녀로 대표되는 인물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다음 영화의 복선처럼 남겨 둔다.

구원의 그림자를 찾아

영화라는 텍스트가 성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모든 메시지는 복음에 저항하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메시지다. 진리가 아닌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진리가 아닌 것을 차단하기 급급하다면 그리스도인은 설 땅이 없을 것이다. 영화를 통해 성경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자,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이기도 하다. 어떤 영화는 관객을 현혹하고 계몽하고 혼란스럽게도 한다. 때로는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영화가 우리에게 텍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안 보는 것이 나은 영화도 있고, 보면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영화도 있다. 기독교에 먹칠한 영화만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기에는 영화는 너무나 다양하고 발견하고 누릴 것들이 많다. 구원이 없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중 특별히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에 의해 우리는 구원의 그림자를 발견하기도 한다. 구원의 밝은 빛을 담아내는 대신, 구원이 없는 혹은 구원이 가까운 곳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시선을 배우게 된다. 영화 자체가 가진 메시지를 해석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시선과 생각을 어떻게 읽고 적용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 | 유지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이자 영화제작과 스토리텔링 전문강사로 영상미디어문화 독립저널 <영상이동> 편집인이다.